

[부활, 우리의 소망 5] - 십자가에 못박히심, 가상철언

장선철 편집국장 / 1996

예수님의 예비하신 배신자의 입맞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 26 : 31)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 죽으시기 위하여 베푸신 최후의 만찬은 찬미의 노래로 끝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 136 : 1) 이 찬미의 노래는 십자가를 향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노래였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야 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 : 42)

너무나 무서운 고독 속에서 번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엄청난 영적인 번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신뢰요, 믿음이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겟세마네 동산의 고요를 깨뜨리며 우리들이 몰려 왔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배신자의 입맞춤이 있었다. 잡히심으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찬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에 의하여 티끌만큼의 흥도 없는 예수님께 아주 파렴치한 흉악범에게 선고되는 「십자가형」이 내려졌다.

예수님이,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유죄판결을 받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질이었다. 예리한 납조각이나 뼈의 조각들을 붙인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은, 옷 벗기운 예수님의 등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질에 의식을 잃었으며 미치기까지 했다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견디셨다.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머리에 가서 면류관을 씌웠다. 흙 대신 갈대를 쥐어주고 예복 대신 낡은 자주빛 소매 없는 외투를 입히고는 희롱하였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 27 : 29) .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친 군병들은 흥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갈보리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다. 가장 멀고 혼잡스러우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을 통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의 장소로 가게 되어 있

었다.

그러나 독기로 가득찬 재판과 조사로 밤을 새운 예수님께서서는 지지셨고 채찍을 맞아 이미 기력을 다 하셨기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 처형장을 향하는 예수님의 뒤를 당신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따랐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눅 23 : 28) 예수님께서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셨다. 「해골의 곳」이라는 골고다에 이르렀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고통을 덜게 한다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서는 맛만 보시고 드시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인간의 언어로는 미처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르는 죽음의 그 처절함을 그대로 감내하고자 하신 것이다. 전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과 희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셨다.

십자가 위에 몸을 펴고 누운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다. 처절한,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는 일으켜 세워져서 파놓은 구멍 안으로 세워지고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까지 욕하며 희롱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 27 : 40)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 27 : 42, 43)

영원히 승리, 위대한 승리의 마지막 일곱마디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 (눅 23 : 34)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 19 : 26, 27)

『제 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막 15 : 34)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 19 : 28)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눅 23 : 46)

그 어떤 분노나 저주도 없었다. 자기비하나 자기연민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다. 죽어가시면서 참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다. 용서와 구원과 사랑이었다. 고독과 목마름과 영원한 승리가 있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보이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못을 박으며 당신께 침뱉으며 희롱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종교의 탈을 쓰고 성전에서까지 환전하며 매매하며 육의 떡만을 좇으려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방법에 따라 죄인 중의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 : 3, 4)

이생뿐이었던 불쌍한 저에게, 아,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